

# 해방 후 문화적 본질주의 글쓰기 양상 연구\*

- 김동리의 『백민』 활동을 중심으로 -

진영복\*\*

## || 차례 ||

1. 서론
2. 민족의 순수성과 문화적 본질주의
3. 문화 민족의 유기체적 인격과 배제
4. 제3휴머니즘과 민족적 원상(原象)의 창조
5.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해방기 민족주의 진영의 중심 잡지인 『백민』에 실린 김동리의 소설과 평론을 중심으로 김동리의 글쓰기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해방 후 김동리는 순수문학을 주장하며 문학가동맹 측과 맞서면서 순수와 민족, 개인과 공동체, 개인의 운명과 민족적인 것의 유기적 연결을 강조하고 민족의 개념을 문화 민족으로 설정한다. 이러한 토대 위에서 해방기 당면과제인 민족문학과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목표에 부응하여 민족의 사상적 형식을 탐구하고 민족 독립의 현실적인 전술을 실천함으로써, 민족을 매개로 하여 문학의 제도화를 도모한다. 따라서 김동리의 해방기 글쓰기는 두 개의 방향을 향하게 된다. 하나는 민족혁명을 통한 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방향 모색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의 사상성의 내용과 방향을 모색하며 민족적인 것의 시원과 문화적 본질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김동리의 민족국가 수립에의 의지는 소련과 좌익에 대한 대타의식에서 구성되므로, 좌익의 부정적인 형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익에 의한 민족국가 수립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좌익을 인륜공동체인 민족을 배신하는 반윤리적 집단으로 부정적으로 표상하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332-A00148)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면서 민족국가 내지 민족혁명을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동리는 민족국가의 세계관과 이를 뒷받침한 민족문학의 내적인 사상성과 내용을 모색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갖는 문학으로 구경(究竟)의 문학을 재창하고, 일상을 예술 창조의 원천이 되는 영원한 정서적 가치들로 변형시켜 시간성과 역사성을 탈각시킨다.

이처럼 해방기 김동리의 글쓰기 방식은 문화적 본질주의를 토대로 한 민족혁명과 민족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민족적인 것의 순수한 기원을 찾아 민족의 공통의 기억과 감각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의 사상성을 신비하고 토착적인 미학적 유산을 영속화하지만, 현재적 일상을 과거와 현재를 초월한 영원한 핵심가치들을 찬양하고 문화적 가치에 특권을 부여하는 장소로 왜곡시키고 있다.

주제어 : 『백민』, 해방기, 김동리, 문화적 본질주의, 민족국가, 문화 민족, 시원, 공통감

## 1. 서론

“도둑같이”<sup>1)</sup> 찾아 온 해방의 기쁨은 잠시, 곧 환멸에 빠져든다. 미증유의 혼돈과 혼란 속에 한반도가 휩싸이고, 정파와 이념적 지향에 따라 대립과 분열은 극에 달하게 된다. 그러나 해방공간은 근대 국가적(nation state) 비전을 제시하고 그 이상을 구현하려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념적, 사상적 갈등은 어찌면 필연적이었다. 국가에 의해 의무교육조차 받지 못한 인민들이 대다수이고 국민적인 참정 경험이 전무한 상태에서 새로운 근대 국민(민족)국가 만들기가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을 것은 당연하다.

해방 공간은 근대국민국가의 이념적 지향과 원리가 모색되고 지금의 남북한 체제의 기본적 토대를 형성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즉, 남북한 모두 민족주의와 국가주의를 결합시켜 근대국민국가의 이념적 토대를 만든 시기인 것이다. 극심한 이념적 대립과 갈등으로 인하여 사회 정세가 더욱 불

1) 함석헌, 『뜻으로 본 한국역사』, 한길사, 2006, p.395.

안해지고 혼란스러워지면서, 이 시기 작가들은 좌우 문단으로 양분된다. 사상적 입장을 확고히 하는 것 외에 민족의 구성 원리와 정치와 문학의 관계 설정에 대한 문제도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였다. 특히 남한은 중도파와 좌파, 우파가 함께 활동하던 다양한 이념의 충돌 공간이었으며, 당시 발간된 잡지들은 대부분 이러한 이념을 구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김동리가 좌익에 맞서 순수문학 내지 민족문학을 주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잡지가 『백민』<sup>2)</sup>이었다. 이 잡지는 『해동공론』, 『예술조선』, 『문화』 등과 함께 당시 우익민족진영을 대표하는 잡지였다.<sup>3)</sup> 이 잡지의 창간사에서, 김동리의 입장과 마찬가지로 “조선의 현정세로보아서 같은 민족 간의 착취와 피착취가 있어선 안 될 것이다. 자본가만 옹호하는 정치나 또는 노동자의 독재적 지배도 용납될 수 없다.”<sup>4)</sup>라고 할 정도로, 이 잡지는 민족을 중심에 두고 있으며 계급문학을 대타항으로 두고 있다. 이 잡지의 발행인 겸 편집인이었던 김송 역시 “예상치도 않았던 두 개의 진영이 대립되고 서울을 중심으로 붉은 물결이 출렁거렸다.” “나는 혼란기에 처하여 노골적으로 백의민족을 표현하고 싶어 『백민』 두 글자를 표제로 내세웠던 것이다.”<sup>5)</sup>라고 회고하여, 『백민』이 좌익에 맞서는 우익 잡지로서 창간되었

2) 『백민』은 1945년 11월 10일에 “미군정의 지시를 받”아 등록하여 1945년 12월호부터 1950년 6월호까지 총 23호를 발간하였다. 『백민』은 1945년 12월 창간 당시에는 월간으로 계획하였으나 대부분 격월간으로 발행되어, 1948년 1월호까지 21호를 발간한다. 그 후 1950년 6월에 중앙문화협회가 『문학』으로 제호를 변경한 후에 22호와 23호를 발간하였다. 이 잡지의 ‘집필자는 약 오·육십명의 시인 작가 평론가였’다. 김송, 『배달을 상징한 『백민』과 해방문단』, 『현대문학』 128호, 1965. 8, p.237.

3)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민음사, 1991, p.29.

4) 『창간사』, 『백민』 창간호, 1945. 12, p.6.

5) 김송, 『백민 시대』, 『한국문단이면서』, 깊은샘, 1983, p.275. 이 잡지가 창간할 당시 발행인 겸 편집인은 김송이었으며, 1948년 22호 『문예』로 제호가 변경된 이후부터 김광섭이 주간을 맡았다. 원래 종합교양지였으나 22집인 1950년 5월호부터는 『문학』으로 ‘『백민』 개제’라 하여 발간하였다. 김광섭, 『문학으로 개제하면서』, 『백민』 6권 3호, 1950. 5.

음을 밝히고 있다.

『백민』은 창간 초기에는 정치 지향의 교양잡지를 표방하였으나, 독자층을 광범위하게 확보하기 위해 1947년 3월부터 문예중심으로 잡지 기획 방향을 변경하면서 절반 이상의 지면을 문학에 할애하게 된다.<sup>6)</sup> 따라서 김동리, 백철, 이헌구 등 전조선문필가협회나 조선청년문학가협회에 가입했던 기성 문인들이나 좌익에 반대하는 우익 문인들이 서로의 문학관의 차이를 잠시 접어 두고 다수가 동인으로 참여하게 되고,<sup>7)</sup> 유호, 손소희, 박연희 등이 신인으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sup>8)</sup>

특히 조선청년문학가협회<sup>9)</sup> 대표였던 김동리는 『백민』에 실린 총 121편의 소설 중 6편의 소설<sup>10)</sup>과 7편의 평론을 게재하였는데, 이는 이 시기 김동리 자신이 창작한 소설 총 18편 중 6편을 게재한 것이다.<sup>11)</sup> 이 정도로 김동

6) 이에 따라 다수의 기성문인과 신인들이 참여하면서 창간 초에 원고난으로 100페이지 미만 분량의 발행부수도 미미한 잡지의 틀에서 벗어나게 된다. 『백민 창작 33인집』을 발매한 지 “24시간 만에 초판이 다 팔려서 다시 재판을 인쇄했는데, 총판을 맡았던 서울역전 서점에는 장사진을 이루고 교통이 마비”되었다. 강진호, 『한국문단이면서』, 깊은 샘, 1999, p.350.

7) 『백민』은 후에 『문예』, 『현대문학』으로 이어지면서, 우익 문단을 형성한다. 이는 권력을 잡은 우익의 이데올로기를 드러내는 『신천지』와 구별된다. 김한식, 『『백민』과 민족문학』, 상허학회, 『상허학보』 20호, 2007, p.238 ; 권영민,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운동 연구』, 서울대출판부, 1986, p.226.

8) 한국문인협회, 『해방문학 20년』, 정음사, 1971, p.143.

9) 조선청년문학가협회(1946.4.4)의 강령은 ‘지주독립 축성에 문화적 헌신을 기함’, ‘민족문학의 세계사적 사명의 완수를 기함’, ‘일체의 공식적 예측적 경향을 배격하고 진정한 문학정신을 옹호함’ 이 세 가지였다. 한국문인협회, 『해방문학 20년』, 정음사, 1971, p.143.

10) 김송은 13편, 최태웅은 9편, 그 다음 김동리, 정비석은 각각 6편의 소설을 『백민』에 게재한다. 이와 같은 사실을 보더라도 김동리는 『백민』의 비중 있는 소설가였다. 이병순, 『『백민』 게재 소설 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2권, 1995, p.144.

11) 『윤회설』(『서울신문』, 1946. 6. 6-26.), 『지연기』(『동아일보』, 1946. 12. 1-19.), 『미수』(『백민』, 1946. 12.), 『혈거부족』(『백민』, 1947. 3.), 『달』(『문화』, 1947. 4.), 『이맛살』(『문화』, 1947. 10.), 『상철이』(『백민』, 1947. 11.), 『역마』(『백민』, 1948. 1.), 『어머니와 그

리는 이 잡지의 주요 필자이자 제일 날카로운 이론가<sup>12)</sup>였기 때문에 김동리의 『백민』지 문학 활동은 『백민』의 매체적 성격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시기 김동리의 소설과 평론은 해방 후 그의 문학 세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13)</sup>

일반적으로 이 시기 김동리 소설을 ‘역사적 현실을 소재로 이념 비판을 시도한 유형과 초역사적 공간 속에서 운명적 인물의 삶을 다룬 유형’<sup>14)</sup>으로 구분하는데, 『백민』에 게재된 작품 역시 이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즉 『혈거부족』, 『상철이』, 『형제』가 전자에, 『역마』, 『미수』, 『개를 위하여』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전자의 유형의 소설은 좌익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비도덕성, 비윤리성을 비난하는 것으로 일관한다. 반면에 후자 유형의 소설은 민족의 시원을 추구한다. 그런데 이 두 유형의 작품들을 분석해 보면, 표면적으로는 이질적인 듯하지만 ‘민족’ 또는 ‘민족혁명’이라는 공통항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15)</sup>

---

아들들』(『삼천리』, 1948. 8.), 『절 한 번』(『평화신문』, 1948. 8.), 『개를 위하여』(『백민』, 1948. 10.), 『심정』(『학풍』, 1949. 3.), 『유서방』(『대조』, 1949. 3-4.), 『형제』(『백민』, 1934. 3.), 『급류』(『조선교육』, 1949. 4-7), 『검군』(『연합신문』, 1949. 5. 15-28.), 『해방』(『동아일보』, 1949. 9. 1-1950. 2. 16.), 『인간동의』(『문예』, 1950. 5.)

12) 김윤식은 김동리를 『백민』의 “가장 날카로운 이론분자”였다고 설명한다. 김윤식, 『봉황과 악작의 동시적 시름-이원조와 조지훈의 주고받기』, 『문학동네』 42호, 2005년 봄호.

13) 김윤식은 김동리의 소설 세계를 대표하는 작품으로 『혈거부족』, 『달』, 『역마』를 꼽았다. 이 중 『혈거부족』과 『역마』는 『백민』에 게재된 것이다. 김윤식, 『한국현대문학사』, 일지사, 1976.

14) 진성석, 『김동리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3.

15) 김동리는 조선청년문학가협회 기관지에서 이미 “민족혁명의 이념이란 대외적으로는 타민족에 대한 대등적 자주적 지위를 말하는 것이고, 자체적으로는 민족적 자각이며 민족정신의 앙양(혹은 자존)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족문학이란 곧 민족정신 발휘의 문학이며 동시에 문학상의 민족적 자각”이며, “세계문학의 일환으로서의 민족적 개성을 특징으로 하는 문학”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김동리, 『조선문학의 지표』, 『청년신문』, 1946. 4. 2.

그 이유는 이 시기 김동리가 민족혁명과 민족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민족적인 것의 순수한 기원을 찾아 민족의 공통의 기억과 감각을 표상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김동리는 민족의 기원이나 본질을 발견하고 이렇게 발견된 것이 그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며 순수한 기원을 지닌 본질로 인식하고 있는데,<sup>16)</sup> 이는 문화적 본질주의에 다름 아니다. 문화적 본질주의는 문화를 통해 순수한 기원을 찾을 수 있고 이를 복원할 수 있다는 의식으로, 대상으로부터 역사적, 체계적 위치를 지운 뒤 문화나 민족적인 것을 순수한 기표로 만들어낸다. 김동리는 민족의 공통의 정서나 향토 감각, 혹은 운명론에 대해 천착하게 되는데, 이러한 민족적인 사상성과 공통감을 발견하고 이를 민족 고유의 것으로, 기원으로 치환하고 있다. 즉 이 시기 김동리의 글쓰기 방식은 민족국가 수립에 필요한 상상적 공동체의 공통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적 본질주의라는 관점에서 해방 공간의 김동리의 글쓰기를 다루는 것은 김동리의 문학적 특성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본고는 『백민』에 수록된 김동리의 소설과 평론을 대상으로, 김동리가 표상한 민족국가 건설과 민족적 시원을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작품 분석에 앞서 이들의 내적 연관성이자 그것의 주요한 작동원리인 문화적 본질주의에 대해서 먼저 고찰할 것이다.

## 2. 민족의 순수성과 문화적 본질주의

해방 후 김동리는 순수문학을 주장하며 문학가동맹 측과 맞선다. 문학가동맹 측은 김동리의 작품이 노골적으로 정치적 성격을 지닌다고 힐난한다.<sup>17)</sup> 이런 비판에도 김동리가 개의치 않은 이유는 그의 순수문학이 민족

16) 小森陽一, 『日本語の近代』, 岩波書店, 2000, p.25.

문학으로 귀결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민족은 순수한 것이기 때문에, 민족을 추구하는 문학은 순수문학이 된다는 논리적 순환론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김동리는 민족문학이란 “원칙적으로 민족정신이 기본 되어야 하는 것이며 민족정신이란 본질적으로 민족 단위의 휴머니즘”<sup>18)</sup>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순수문학과 민족정신이 기본 되는 민족문학과는 별개가 아니라고 피력한다. 이러한 김동리의 입장의 토대는 다음과 같은 논리적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일 것이다. 민족은 친족이나 고향과 같이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인간이 자연적으로 연결된 단위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가 아닌 자연스런 것이다. 민족됨은 피부색, 성, 태생, 출생 시기 같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운명적이고 자연적인 성격을 지닌다. 바로 이 자연적 연결에서 사람들은 공동체(gemeinschaft)의 아름다움 같은 것을 느끼게 된다. 바꿔 말하자면 그러한 연결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사심 없음의 빛으로 둘러싸여 있다.<sup>19)</sup> 따라서 민족적 주체는 이해관계와는 무관하게 텅 비어 있는 순수한 것이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민족은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순수와 민족, 개인과 공동체, 개인의 운명과 민족적인 것의 유기적 연결을 강조하는 김동리의 입장에서 민족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다. 그는 민족을 “일정한 지역과 혈연과 언어와 역사와 습속에 있어 어떤 특수한 공통적 운명을 지닌 생활군”<sup>20)</sup>으로 정의하는데, 이러한 입장에는 민족은 시원부터 있어왔고 앞으로도 영속적이고 영원한 실체로서 같은 운명공동체라

17) 이동하 역시 “김동리 문학이 정치적 차원에서 볼 때 가장 순수한 의미를 지녔던 시기는 해방과 더불어 끝”났다고 평가하였다. 이동하, 『한국문학의 전통지향적 보수주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9, p.63.

18) 김동리, 『순수문학의 진의』, 『서울신문』, 1946.9.14, 『김동리 전집』 제7권, 민음사, 1997, p.80.

19) Benedict Anderson, 윤희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p.186.

20) 김동리, 『문단 일 년의 개관』, 『김동리 전집』 제7권, 민음사, 1997, p.127.

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러므로 우리 민족은 단군의 한 자손으로 한 핏줄의 가족이나 마찬가지로는 단일민족론에 기대어 동일한 핏줄과 동일 운명을 강조한다. 이러한 민족 이해는 민족을 문화 민족(Kulturnation)의 개념으로 파악하는 전형적인 예이다. 문화 민족은 언어, 공통의 문화 유산, 종교, 관습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민족의 기초로 강조하며, 민족은 국가에 선행하며 공통의 역사적 가치와 사회적 유대에 기초를 둔 실재라고 인식한다. 즉 민족적 유대감은 국가나 정치 형태에 관계없이 존재하며, 민족주의라는 것도 실상은 이러한 원초적 유대감이 왕조적 충성심을 거쳐 양적으로 성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sup>21)</sup>

민족 개념을 문화 민족으로 파악하는 김동리의 입장은 주관주의적인 민족 이론인 국가 민족(Staatsnation)으로 민족을 이해하는 좌파의 민족 개념과 뚜렷이 대립된다. 좌파의 대표적인 철학자인 박치우는 잡종이면서도 동일족을 구성하고 있으면서도 동포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들어 민족은 혈연이나 흙의 산물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박치우는 불란서 혁명을 통해 신분적 차이가 사라진 후 국민의 문화생활에서 동질성이 증가하였기에 국민은 비로소 국민으로서만이 아니라 민족으로서의 공동성을 확대 내지 자각할 수 있게 되어, 비로소 참된 의미에서 민족으로서의 대자태의 기반을 얻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불란서 혁명이 민족 발견의 단초를 지은 것이라고 지적되는 이유는 실로 여기에서 연유한다고 설명한다.<sup>22)</sup> 즉 박치우는 민족 공동체에 기꺼이 자신을 귀속시키고자 하는 민족

21)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소나무, 1999, p.22.

22) 김동리, 『문단 일 년의 개관』, 앞의 책, p.142. 박치우는 만약 우리들 사이에서 조선 사람은 '천손'이며 세계에 으뜸가는 민족이라든가 우리글과 문화가 덮어놓고 세계에 제일이라고만 주장하여 외국문화의 자유롭고 활발한 섭취를 방해하는 자는 바로 국수주의자이며, 또 이 같은 국수주의적 정신의 발판위에서 민족감정에 불을 질러서 정치적 야심을 만족시키려는 자가 정히 별다른 게 아니라 파시스트라고 단언한다. 결론적으로 박치우는 민족을 떠나면 문화가 발전할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아메리카 문화

성원의 주관적 의지가 민족을 만든다는 국가 민족 입장에 있는 것이다. 국가 민족 이론은 민족 공동체에 대한 인민들의 자발적 귀속 의지를 불러일으킨 역사적 계기로 프랑스 대혁명을 꼽는데, 이 보편적인 인민 주권론이 세속주의 및 국민적 시장권과 결합되면서 봉건 사회의 왕조적 충성심에 질적 전화를 가져와 근대적 민족주의를 낳았다고 파악한다. 이러한 국가 민족의 민족 개념에서 이원조는 “민족이란 개념은 시민 사회의 발생과 함께 생긴 개념이고 봉건 사회에서는 없었던”<sup>23)</sup> 것으로 규정하고, 현단계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단계’ 즉 시민사회의 근대 국가를 건설하는 단계로 파악하고 문학 역시 민족 문학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김동리는 그들이 주장하는 민족문학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단계의 민족문학이며 한시적인 민족문학이기에, 중국에는 프롤레타리아트 문학을 지향하는 계급문학이 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김동리에게 민족은 영원한 운명 공동체이며 18세기에 팽배했던 민족의식이란 그러한 고유 의식의 양양 혹은 강화에 불과한 것이다.

민족은 사심 없는 순수한 공동체라는 착시 효과 때문에 김동리는 계급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계급문학과 달리 민족문학을 순수문학이라고 규정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민족혁명을 지상명령으로 하는 김동리에게 반좌익적 ‘정치’의 주장은 이데올로기적 주체<sup>24)</sup>의 행위가 아니라 지사적 책임을 일깨우는 전통의 추구로써 비정치적, 비이데올로기적 행위가 된다.

---

를 살펴보라 하고, 문화의 본질을 과거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현재에서 찾을 것을 주장한다. 박치우, 위의 책, p.173.

23) 이원조, 『「문화단체총연맹」의 민족문학론』, 『문학』 창간호, 조선문학가동맹, 1946. 7, p.125.

24) 알튀세르는 모든 주체를 이데올로기적 주체로 파악한다. 즉 인간은 상상적 주체 속에 자리 잡은 구성적 권력 하에서만 의식적일 수 있으며 이데올로기가 개인을 주체로 호명하기 때문이다. Bill Ashcroft 외, 이석호 옮김,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p.274.

순수한 목적의 민족혁명을 추구하기에 행위자의 정치성마저도 탈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국가 수립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의 실천은 자연스럽지 못한 행동이 되고, 민족혁명을 추구하는 행동은 자연스런 실천 행위가 되는 것으로 구별하면서 논리적 대립 지점을 설정한다. 민족적인 것의 지향은 사심 없는 순수한 행위이지만 좌익은 계급적 이익을 앞세우는 순수하지 못한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위계적인 관계 지움을 통해 좌익을 담론의 동등한 타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좌익의 담론과 언어는 민족적 주체를 옹호하는 권위적 서술자의 일방적인 목소리에 의해 파편적으로 제시되거나 폄하되어 제시될 뿐이다.

따라서 김동리는 해방기 당면과제인 민족문학과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목표에 부응하여 민족의 사상적 형식을 탐구하고 민족 독립의 현실적인 전술을 실천하기 위해, 민족을 매개로 하여 문학의 제도화를 도모한다. 자본주의적 기계문명과 소련식의 획일주의에서 벗어나 개인의 영혼의 깊이를 민족의 역사적 영혼의 깊이와 매개함으로써 개인의 인륜적 실체를 민족의 사상형식에서 확장하여 구성하고자 한다. 시대의 변동 속에서도 민족의 삶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 변함없는 원리로 민족적 본질을 구성하고, 이런 전범적인 원리들에 따라 일상생활을 재조직하고자 한다. 완결되고 변함없는 과거를 전범 삼아 현재를 조절하고 주체와 경험이 영원히 지속되는 문화적 형식을 창조하려고 한다. 이런 점에서 해방기 김동리의 글쓰기는 문화적 본질주의를 통해 역사를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민족의 초역사적 사상과 가치들의 힘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의 민족적 시원의 추구는 비시대적인(untimely) 기이함(uncanny)의 형태를 띠 수 있는지도 모른다.<sup>25)</sup> 또한 민족적 사상성이자 원상을 표상함으로써 이를 통

25) 『윤회설』에서 “만주서 아버지는 왜놈이라고만 하면 여자나 아이들까지도 보는 족족 다 잡아 죽이고 그뿐만 아니라 죽여서는 반드시 목을 질러서 피를 받아 마셨다”(『김동리 전집』 제7권, 민음사, 1996, p.36.)는 표현이 그 단적인 예이다.

해 탈서구적이고, 탈식민적인 과정을 수행하고 동시에 민족국가건설에 필요한 공동감<sup>26)</sup>을 형성하고자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의 지식이나 민족의 공동감을 ‘문화적인 지식’에 근거하여 재구성하여 새로운 민족주의적 틀에 적응하도록 ‘기억’을 만들고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한 셈이다.

그러기에 김동리는 ‘문학적 주체 의식’이 민족에 있느냐 혹은 계급에 있느냐는 구분법을 통해 민족문학의 진정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획 속에서 진정한 민족문학을 수립하기 위해 그의 글쓰기는 두 개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하나는 민족혁명을 통한 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방향모색이다. 민족국가의 성격에 대해서는 주로 소련 국가 체제와 사회를 대타향으로 삼아 새롭게 건설해야 하는 민족국가 체제의 가치를 모색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민족의 사상성의 내용과 방향을 모색하며 민족적인 것의 시원과 기원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공통된 민족의 세계관을 탐사하고 민족이 지향해야 하는 보편적인 세계관과 휴머니즘을 제3휴머니즘으로 정립하여 제시한다.

### 3. 문화 민족의 유기체적 인격과 배제

김동리의 민족국가 수립의 의지는 소련과 좌익에 대한 대타의식에서 구성된다. ‘민족이나 계급이냐’라는 언표는 좌파와 차별성을 부각하면서 민족 진영의 중심점을 세우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었다. 민족주의는 철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난제지만 정치적으로는 강력한 효과를 지닌 이데올로

---

26) 베네딕트 앤더슨에 따르면 “민족은 가장 작은 민족의 성원들도 대부분의 자기 동료들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며 심지어 그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지만, 구성된 각자의 마음에 서로 친교(communion)의 이미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상상된 것”이라고 한다. Benedict Anderson, 앞의 책, p.186.

기이기 때문이다. 또한 대립항인 소련과 좌익은 세계사적으로 이미 극복해야 하는 제2기 휴머니즘에 속하고 김동리 자신의 입장은 이를 극복하고 나온 제3기 휴머니즘이라고 설정함으로써 좌익의 주장이나 담론은 대등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미 지양된 혹은 현실에서 지양해야 하는 부정과 대립의 대상일 뿐이다. 그러므로 좌익에게 유리할 것 같은 사실이나 입장은 배제하거나 그 문맥을 바꾸는 등의 고도의 정치성을 발휘하기도 한다. 김동리의 이러한 행보는 민족국가 수립을 둘러싸고 양보할 수 없는 대립적인 상황에서 배제와 수립의 운동인 것이다.

평론 『좌우간의 좌우』에서는 좌우익의 상관관계를 고찰하면서 민족국가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조선의 소연방화와 미식민지화를 동시에 배격하면서 민족국가를 수립해야 하는 당위론을 제기하면서도 현재 지구상의 모든 국가의 좌익의 배후엔 소련의 원조가 있고 모든 민족의 우익의 배후엔 또한 미국의 동정(同情)이 있다는 현실론을 펴나. 따라서 미소 중 어디를 더욱 신뢰하는가의 여부가 좌우익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며 민족국가의 수립에서 중요한 필수조건이 된다. 또한 “소위 다수 표방에 있어 계급의식을 대립시켜서 이것을 표준으로 다수를 추출하려는 것이 좌익이라면, 민족의식을 기간으로 한 초계급적 절대다수를 추출하려는 것은 우익이”<sup>27)</sup>라며 다수의 추출방법을 좌우익의 구분법으로 제시하여 민족국가의 성격을 구분한다. 그런데 김동리는 이 두 세계 사이의 중간적인 지대나 절충적인 지점은 존재할 수 없다고 단언한다. 미소를 선택해야 하는 절대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조선에서 좌우합작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소련의 두 개의 극점은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냉전체제를 예견한 현실적인 판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초계급적 민족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김동리는 “탁치 오개 년을 꺾어서 독립하자는 것보다 단번에 독립을 전취하자는 것

27) 김동리, 『좌우간의 좌우』, 『백민』 제2권 4호, 1946. 10, p.21.

은 여간 급진적이 아니다.”<sup>28)</sup>라고 주장함으로써 신탁통치를 반대하고 민족국가를 수립해야 한다는 입장에 선다.

이러한 김동리의 입장이 투영된 소설이 「혈거부족」이다. 이 소설은 해방 후 만주에서 귀환한 전재민인 순녀 모녀와 평안도에서 이남한 월남민 황생원 모자를 중심으로, 방공굴을 무대로 한 피난민의 삶을 그린 작품이다. 순녀는 봉천에서 해방을 맞이한 후, 남편과 함께 안동, 신의주, 평양을 거쳐 서울에 도착한다. 고향인 경상도 영천으로 가려고 하지만 여비가 떨어져 서울에 머무르게 되고 남편이 죽자 양담배 장사를 하며 생계를 꾸려 나간다. 그때 고구마 장사를 하고 있던 황생원의 어머니 소개로 방공굴을 얻게 되어 딸 옥희와 살게 된다. 이처럼 정치적 상황을 주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기저층 사람들의 비참한 삶을 극대화한다.

이들의 방공굴 생활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장마에 굴이 무너져 사람이 죽는 일이 발생하여도 사람들은 모두 무기력하게 지켜보기만 한다. 단지 이들은 산 아래 도심에서 떠도는 정치적 상황을 파편적으로 조합하여 여기에 자신의 소망을 투사할 뿐이다.

「아 신탁통치레 독립인가?」

하였다.

「독립은 아닌 모양인게지」

하는 것이 여섯째 구멍의 노인,

「아 그러갓게 우리레 이런 고생하디 독립되습야 이려고 있갓오?」

하는것은 또 황생원 모친이다.

「독립되도 별수 없을게라는 사람도 있두만서도……」

여덟째 구멍의 여인이 또 혼잣말 같이 이렇게 말하니, 황생원 모친과 여섯째 구멍의 노인이 한꺼번에,

---

28) 위의 글, p.22.

「누구래, 그런 쌍……」

「천만엿……」

하고, 분연히 반박을 했다.

「독립만 되면야 이럴리가 있나요?」

한것은 셋째 구멍의 사나이의 말, 그러자,

「독립이나 얼른 돼 봤으면 죽어도 원이 없겠다.」

순녀도 한마디 하였다.

황생원은, <으으응>하고 신음하는 소리와 같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신탁통치>가 되면 태극기도 못쓰게 되리라는 소문에, 이왕이면 그것으로 속자의 앞치마라도 만들어 줄가부다고 망설이다 든, 그 여섯째 구멍의 여인도, 이라고 보면 역시 그대로 뒤두기를 잘했다고 혼자 속으로 가만히 한숨을 내쉬었다.<sup>29)</sup>

인용에서 보듯이, 해방의 환멸과 비참한 생활이 ‘독립’으로 종식되리라는 기대감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러한 극에 달한 처참한 생활과 환경은 독립에의 열망으로 단순히 수렴되고, 신탁통치는 독립을 연기하는 반민족적인 것으로 쉽게 규정된다. 마치 고난의 현실이 민족독립과 분리되어 나타나는 분리의 고통이듯이 분리의 결합을 통해 온전한 결속을 회복할 수 있다는 이미지를 창조한 것이다. 특히 고통을 겪고 있는 기저의 하층민의 소망이기에 그것에 대한 소망은 더욱 강렬하게 표현된다. 이러한 설정은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이성적인 토론이나 접근은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어버린다. 태극기라는 상징을 통해 신탁통치 찬반여부를 민족적/반민족이라는 틀로 대립화하는 한편, 좌익에 대한 비판 잣대는 이념이 아니라 윤리성으로 대체되어 버린다. 즉 황생원의 처는 이북에서 소련병사에게 겁탈을 당해 자살한 것으로 그려지고, ‘공산주의 자유주의 시대’를 지지하는 윤기는 순녀를 겁탈하려 하고 방공굴을 다른 이에게 팔아먹은 수완까

29) 김동리, 「혈거부족」, 『백민』 3권 2호, 1947. 3, p.42.

지 발휘하는 과락호로 재현된다. 그러므로 하나의 인륜적 총체를 이루는 민족국가는 비윤리적인 부류를 배제하고 구성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현실’의 요구이며 상황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민족국가 세우기 과정에서 김동리가 좌파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배제하는 것은 필연적이다. 『백민』에 글을 게재하기 이전인 1946년 6월에, 그의 해방 후 첫 소설인 『윤회설』(서울신문, 1946.6.6-26)에서 이미 주인공 중우의 언술을 통해 소련의 공식적 기계주의와 몰개성성을 비판하면서 반좌익적인 입장을 확고히 세운 바 있다. 좌익의 담론이나 주장은 성찰되지 않은 채 윤리 대 반윤리의 틀로 재편되어 몰가치한 폄하와 조롱의 대상이 된다.<sup>30)</sup> 김동리는 평론 『문학과 자유의 옹호』에서 북조선 원산에서 발생한 ‘시집 옹향 사건’을 좌익에 대한 세 가지 증거로 다루고 있다. 즉 이 사건은 소련과 좌익에 대한 비판과 부정의 구체적 증거이며, 소련과 좌익의 문학적 원리가 기계적이고 정치적인 것임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그리고 북조선이 소련의 공식주의적 사회상을 그대로 추종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거로 간주한다. 그래서 김동리는 “개성의 자유를 봉쇄하는 획일주의적 기계시(機械視) 속에만 자유가 있고 인간성이 있다는 소연방주의자와 및 그 주구들과 우리와의 사이에는 이미 언어가 통치 않게 되었”<sup>31)</sup>다고 이들과의 적대적 거리를 절대화한다. 그는 아무리 사회제도가 완성된다 하더라도 인간 자신이 영원히 불완전한 이상, 우리의 현실은 영

30) 『윤회설』에서도 좌익 경도자인 성란에 대한 도덕성을 문제 삼는다. 성란은 좌익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오빠 중우를 인신공격하고, 그와 헤란의 사랑에 이간질을 한다. 특히 독립 투쟁을 하다 옥사한 아버지의 제삿날에도 참석하지 않는 성란을 통해 김동리는 좌익을 비윤리적이라고 낙인을 찍고 민족의 범주에서 배제한다. 그러므로 이원조는 이 소설을 “순수문학의 냄새만 풍겼지 실은 엄청난 정치소설”이라고 비판한다. 이원조, 『허구와 진실-서울신문 단편리레를 읽고』, 『서울신문』, 1946. 9. 1.

31) 김동리, 『문학과 자유의 옹호, 시집 『옹향』에 관한 결정서를 박함』, 『백민』 3권 4호, 1947. 7, p.51.

원히 우리에게 불만일 것이기 때문에 작가란 영원히 현실에 대하여 부정적이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에서 북조선의 문학관을 비판한다.<sup>32)</sup> 따라서 북조선의 인민의 문학, 당의 문학을 목적 문학으로 거부한다. 또한 “목적이 좋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일방적인 주장이다.”<sup>33)</sup>라며 그 목적이란 것 자체도 유한한 인간이 추구한다는 점에서 절대적 성격을 지닐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절대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소련 체제와 좌익 사상에 대립하고 투쟁하는 것이 인륜성을 지키는 실천의 의미를 갖게 된다는 사실을 「상철이」, 「형제」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상철이」의 주인공 상철은 그 동무들의 권고에 따라 대한독촉청년회라는 청년 단체에 들었다. 힘이 세고 일찍이 복싱 경험이 있는 그는 특별히 <별동대>에 들어가 한 달에 몇 번이고 청년회에서 나오라고만 하면 언제나 일을 쉬고 뛰어나가는 열성을 보인다.<sup>34)</sup> 상철이가 어떤 정치적, 철학적이유에서 이러한 선택과 행동을 하는지는 전혀 제시되어 있지 않지 않으면서도, “독립은 어찌돼?”라는 아버지의 물음에 “빨갱이 땀에 안 돼요.”라는 대답이 반복되면서 작품은 끝난다. 사상 문제에 관한 담론이나 담화를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적대적인 반공의식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을 뿐이다. 그 대신에 상철이라는 인물에게 의리와 효와 같은 인륜성을 부여한다.

상철이가 그 어머니를 따라 지금의 의붓아버지의 집애와 살게 되었던 것은 그의 나히 여섯 살 났을 때였다. 의붓아버지의 전처 자식으로는 그 해 열한 살 먹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이 아이를 전처 자식이라 하여 미워하는 눈치였으나, 그(전처 자식)와 그 아버지는 상철을 조금도 미워한 적이 없었다. 그때부터 상철은 마음 한구석에서 어머니보다 아버지편이 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세상에 무엇이든 아주 옳은 일이 한 가지 있는 게라

32) 위의 글, p.53.

33) 위의 글, p.55.

34) 김동리, 「상철이」, 『백민』 3권 6호, 1947. 11, p.81.

고 그는 믿기 시작했던 것이었다. 그가 구간(球竿)을 다루고 복싱을 배우고 하기 시작한 것도 <아주 옳은 것>이 있으리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sup>35)</sup>

이처럼 상철은 정의에 관한 윤리적 감각과 성실한 생활 태도를 갖고 있는 청년이다. 그래서 그의 이복형과 또 어머니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아버지마저 해수병으로 일을 못하게 되자, 살림살이와 아버지의 병간호까지 혼자서 기꺼이 도맡는다. 이러한 상철이의 인간적 윤리성이 ‘아주 옳은 일’인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상철이가 속해 있는 청년회의 활동 역시 ‘아주 옳은 일’임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즉 청년회의 활동의 정당성은 인륜성을 수행하는 상철의 행동 이미지에 의해 뒷받침된다. 또한 청년회는 서로의 관계가 기계적이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담보한 절대적인 책임 주체라는 인식이 밑바탕에 내재되어 있다.<sup>36)</sup>

인륜성의 문제는 『형제』에서 더욱 확대된다. 이 소설은 1948년 10월 여수 사건을 모티프로 하고 있는데, 주인공 인봉이는 우익 단체인 대동청년단에서, 그 아우 신봉이는 좌익 단체인 농민조합에서 활동한다. 좌익의 프르티잔 활동으로 “과연 세상이 뒤집어져 돌연 인민공화국 천하가 되어 버린 이날”에 인봉이의 두 아들 윤수, 정수가 그 삼촌인 신봉이에 의하여 참살을 당한다. 신봉은 5·10선거 방해로 경찰서에 구금되었던 것이 인봉이 때문이라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신봉이는 인봉을 찾아 죽이려 하자, 인봉이는 친구집으로 피신한다. 그러다 국군이 들어오자 성난 군중들은 이번엔

35) 위의 글, p.81.

36) 김동리는 『동아일보』에 연재한 『해방』(1949.9.1-1950.2.16)에서 청년회 활동을 하는 상철이라는 인물을 다시 등장시킨다. 이 소설은 대한청년회 회장이 좌익 쪽의 테러로 피살되면서 시작되는데 그의 이복동생인 상철이 감찰부장으로 활동하며 이것의 범인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지만 이 과정에서 청년회의 회원이 또 한명 희생되고 심문과정에서 범인 역시 죽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처럼 청년회의 활동은 목숨까지 담보한 것으로 사상성보다는 인륜성의 공동체로 그려진다.

‘빨갱이 씨도 남기지 말고 죽여안당개’라며 “신봉이와 마찬가지로 농민조합 출신의 남로당원으로 이번에 반란군의 앞잡이가 되어 경관과 학생과 광민들을 학살하는데 특히 활약한 사람 중의 하나”<sup>37)</sup>인 이종석의 열 세 살 난 딸마저 죽인다. 군중들이 신봉이의 아들이자 인봉의 조카인 성수를 죽으려 하자, 신봉과 달리 인봉은 성수를 데리고 도망한다. “지금 성수를 업고 다라나는 자기는 분명히 신봉이요, 자기 뒤를 쫓아 따라오는 박생원과 대청 동지들이 흡사 자기 자신인 것 같았다.”<sup>38)</sup>는 인봉의 생각으로 소설은 끝난다. 이러한 소설의 결말은 사상적 대립의 외중에서 좌익은 인물마저 짓밟으며 자신의 조카를 죽이지만, 이에 비해 민족 진영은 사상의 차이보다는 혈육의 생명이 우선된다는 윤리성을 보여주어 민족적 정서의 공감을 얻어내고 있다.

이처럼 김동리는 좌익을 민족공동체를 배신하는 반인륜적 집단으로 부정적으로 표상하면서 민족국가와 민족혁명을 지향한다. 민족은 순수하며 자연스런 것으로 유구한 세월 속에 함께 해온 관계의 총화로서 유기체적 인격을 이루고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민족을 부정하는 것은 비인륜적 행위라는 유교적 의식을 보여 준다. 민족적 과거를 이상화하고 민족을 하나의 인격으로 보려는 유기체적 민족관은 민족이라는 집단적 자아를 소망하게 하고 민족 혁명에 대한 낭만적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김동리가 좌익의 인물을 성적으로 무분별한 인물들로 그리거나 지적 탐구 능력에서 권위적 인물보다 저열한 것으로 부정적인 형상화로 그릴 수 있었던 것은 민족의 유기체적 인격으로부터 이탈한 좌익은 몰인격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사회 계급 간의 모순이나 정치경제적 문제는 계몽주의적 이성에 불과한 것이며 낭만주의적 민족 혁명의 과정에서 파생

37) 김동리, 『형제』, 『백민』 5권 3호, 1949. 3, p.79. 이 작품은 『실존주』에 수록 될 때 『광풍 속에서』로 개제되고 작품 내용도 대폭 수정된다.

38) 위의 글, p.81.

되는 우월한 감성과 상상력으로 간단하게 극복가능한 문제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 4. 제3휴머니즘과 민족적 원상(原象)의 창조

김동리는 민족국가의 방향과 성격을 좌익에 대한 부정과 비판으로 대타향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국가의 세계관과 이를 뒷받침한 민족문학의 내적인 사상성과 내용을 모색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갖는 문학, 구경(究竟)의 문학을 제창한다.

평론 『민족문학과 경향문학』에서는 순수문학-본격문학-민족문학의 연쇄고리를 논한다.<sup>39)</sup> 조선의 본격문학인 ‘제3휴머니즘 문학’만이 민족문학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계급문학을 민족문학 범주에서 배제해버린다. 이렇듯 김동리는 제3휴머니즘을 조선에서 건설해야 할 사상성으로 제시한다. 그는 과학주의, 물질주의, 기계주의를 근대주의(자본주의 사회)라고 규정하고 이를 초극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고<sup>40)</sup> 이 극복의 과제가 제3휴머니즘<sup>41)</sup>에 있다고 본다. 한편 마르크시즘은 사회관에서는 근대주의(자본주

39) 김동리, 『민족문학과 경향문학-문학의 각태』, 『백민』 3권 5호, 1947. 9, p.20.

40) 이러한 김동리의 문제의식은 해방 전부터 비롯된다. 조연현은 이광수의 무정에서 출발된 근대정신이 최명익과 이상에 이르면 해체과정을 겪고, 이렇게 붕괴된 근대정신이 직면하게 된 것은 허무이며, 이 완전히 붕괴된 근대정신을 정리하고 청산하려는 최초의 획기적인 작품이 바로 김동리의 <황토기>라고 말한다. (조연현, 『근대조선소설사상계본론서설』, 『문학과 사상』, 세계문학사, 1949. pp.53-60.) 김동리는 자신의 창작의도를 다음과 같이 드러낸다. “모화가 파우스트와 대체될 새로운 세기의 인간상이란 것을 아무도 모를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남들은 비웃을 것이다. 그러나 백 년만 두고 봐라! 모든 것이 증명될 것이다! 역사가 증명해 줄 것이다.” 김동리, 『창작의 과정과 방법-〈무녀도〉 편』, 『신문예』, 1958. 11, p.10.

41) 『대조』에 실린 『본격문학과 제3세계관의 전망』에서도 ‘제3휴머니즘’이 서구적 근대주의와 소련식 공식주의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낸다. “근대주의의 말로에

의 사회)에 강경히 항거하였음에 불구하고 유물론적 사상 체계의 세계관과 방법이 과학주의, 물질주의, 기계주의와 동일한 것이므로 근대주의의 연장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근대주의 사회의 모순과 결함을 근본적으로 시정하는 한편, 마르크시즘 체계의 획일적 공식적 메카니즘을 지양하여 새로운 고차원의 제3세계관과 제3휴머니즘을 지향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김동리에게 제3휴머니즘론은 문학은 본격적으로 민족의 사상성을 탐구해 들어가게 하는 방식이며, 민족문학과 본격문학을 매개하는 방식인 것이다.

「문학하는 것에 대한 사고(私考)-문학의 내용(사상성)적 기초를 위하여」는 제3휴머니즘의 내용적 사상성을 본격적으로 탐색하여 정연한 의미체계를 완성한 글이다. 이 글에서 문학이 추구해야 할 제3휴머니즘이 ‘구경적 생의 형식’<sup>42)</sup>이라고 설명한다.

인류는 그가 가진 무한무궁예의 의욕적 결실인 신명을 찾게 되는 것이다. 신명을 찾는다는 말이 거북하면 자아 속에서 천지(天地)의 분신을 발견하려 한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말을 부연하면, 우리는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천지 사이에 태어나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천지 사이에 살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통하여, 적어도 우리와 천지 사이엔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유기적 관련이 있다는 것과 이 <유기적 관련>에 관한 한 우리들에게는 공통된 운명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

---

서 도달된 과학 만능주의와 물질 지상주의와 기계 문명주의 등은 고대에 있어서의 신화적, 미신적 제신의 우상처럼, 중세에 있어서의 계율화한 전제신의 압제처럼, 또다시 한계 새로운 근대적 우상이 되어 인간에게서 꿈과 신비와 낭만과 그리고 구경적인 욕구를 박탈하게 되었다. 여기서 인간은 이 과학주의, 물질주의, 기계주의를 비판하고 이를 초극하고자 하는 새로운 의욕에 도달하게 된 것이며 이것이 곧 제3휴머니즘이란 표어로서 대표되는 제3세계관의 지향이라 일컫는다.” 김동리, 『본격문학과 제3세계관의 전망』, 『대조』, 1947. 8, p.92.

42) 김동리, 「문학하는 것에 대한 사고(私考)-문학의 내용(사상성)적 기초를 위하여」, 『백민』 4권 2호, 1948, 3, p.45.

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부여된 우리의 공통된 운명을 발견하고 이것의 타개에 지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영원히 천지의 파편에 그칠 따름이요, 우리가 천지의 분신임을 체험할 수는 없는 것이며, 이 체험을 갖지 않는 한 우리의 생은 천지에 동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sup>43)</sup>

김동리의 언급은 교토학파의 니시타니(西谷啓治)의 “신비주의 특색은 대체로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여지는 신, 그리고 동시에 그것과 자기 사이의 생명적 합일을 추구하므로, 물론 거기에는 ‘나’의 부정이 있”<sup>44)</sup>다는 철학적 입장과 상통한다. 김동리의 글쓰기에서 구경이란 전통적, 신화적인 우주에로의 영원한 회귀를 지향하는 거대 리듬에의 융화를 말한다. 또한 죽음이란 인간이 자연으로 돌아가는 존재적 길일뿐만 아니라 존재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론적 통로가 된다. 그러므로 자신의 유한성을 태초의 영원 속에 던짐으로써 소멸을 통한 절정을 갈구한다. 따라서 죽음은 유한 존재의 불가항력적인 패배가 아니라 자연과 신에의 영원회귀를 위한 일종의 제의가 된다. 이미 일제 말기 『황토기』를 통해 이러한 세계를 탐구했던 김동리는 해방기에서는 이런 전통적 미학과 생명관을 민족의 문화적 본질로 규정하고 재현함으로써 이를 민족국가의 에네르기로 수렴시킨다.

『개를 위하여』는 스물일여덟 가량의 청년 영육과 개의 두 주체 간의 온전한 합일을 형상화한다.

그들 사이에는 모든 것이 진실로 잘 통해 있었다. 영육이가 허리를 굽혀  
패랭이나 들국화 같은 것을 꺾을 양이면 개의 그 움쭙하고 식킴언 두 눈은

43) 위의 글, p.44.

44) 나카무라 미즈오·니시타니 게이 지 외, 『좌담회 <근대의 초극>』, 이경훈 외 옮김, 『태평양 전쟁의 사상』, 이매진, 2006, p.68.

환희와 안심을 담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며, 영육이가 문득 가슴의 거북함을 느낄 때에는 개도 한숨 쉬듯 그 뼈끔뼈끔 뚫린 두 콧구멍을 벌름거리며 가만히 외면하고 앉아 있곤 하였다.<sup>45)</sup>

그런데 영육의 운명은 영육을 양아들 삼은 서녘 무당뿐만 아니라 개 역시 예감한다.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샤머니즘의 세계와 죽음을 통해 영원한 합일의 세계가 그려진다.

그러나 그는 웬일인지 영육이가 누워 있는 방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뒷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뜰 앞을 멀거니 바라보고 있더니, 수건에 싸온 석류와 감을 뒷마루 위에 끌러놓고는 그대로 섬돌 위로 내려가 거기 누워 있는 누렁이의 머리를 쓸어주며 혀를 몹시 짹짹 찰 뿐이었다. 개는 꿈작도 하지 않고 가만 있었다. 그러다 서녘 무당이 훌쩍 일어나 삼작 밖으로 나가 버리자 개는 고개를 들어 그의 뒷모양을 한참 바라보고 있다가 낮은 음성으로 <으응>하고 신음 하는 소리를 내었다.<sup>46)</sup>

영육이가 죽던 날부터 누렁이는 마루 밑으로 깊이 들어가 나오지 않다가 이후 죽은 채 발견된다. 이 소설은 개체성을 떠나 우주적 조화와 죽음을 통한 영원한 합일의 사상을 민족적인 샤머니즘의 시선으로 재구성하고 이를 민족적 원상으로 구현한다.<sup>47)</sup> 그러나 이 작품은 우주관과 역사가 구별되지 않고 세계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시간의

45) 김동리, 「개를 위하여」, 『백민』 4권 5호, 1948. 10, p.22.

46) 위의 글, p.23.

47) 「달」(『문화』, 1947. 4) 역시 샤머니즘의 세계를 보여준다. 모랭이(毛良) 무당은 달을 품는 꿈을 꾸고 곳을 마치고 돌아오던 화랑과 관계하여 아들 달을 낳는다. 이후 달이 서당 스승의 딸 정국과 사랑에 빠지고 정국은 달을 처음 볼 때부터 달과의 사랑으로 자기가 죽을 것임을 예감한다. 이 둘의 사랑은 소문이 나고 정국은 자살한다. 달은 하늘의 달과의 일체화를 경험하고 자살한다. 이처럼 김동리는 ‘죽음의 미학’을 통해 세계와의 절대적인 일체화를 꾀하는 낭만주의를 지향한다.

개념 위에 있음으로써, 존재의 일상적인 숙명성(죽음, 상실, 예속)을 우주론적 섭리에 두고 이를 실체화하고 본질화한다. 이는 서구적 근대의 극복이 아니라 근대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과 같다. 과학주의를 극복하자는 김동리의 의도가 근대 이전의 전통적인 종교의 세계로 회귀해버린 것이다. 한편 이 신비주의와 죽음을 통한 합일이 주체 안에 있는 타자성이나 주체 밖의 타자의 타자성을 상기시키는 계기가 된다면 모르겠지만 민족적 자아와 유기적 전체성을 강조하고 여기에 ‘무아(無我)의 주체성’이라는 로맨티시즘이 결부되어 민족을 이데아처럼 동경하고 추구하는 열망에 싸인다면 상황에 따라 전체주의적 민족(국민) 이데올로기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민족의 사상성에 대한 탐구는 『문학적 사상의 주체와 그 환경-본격문학의 내용적 기반을 위하여』로 이어진다. “문학은 문학적 사상의 문학적 표현이다.”<sup>48)</sup>라는 명제를 토대로 하여 모든 문학이 사상을 갖는다는 것, 그러나 문학의 진정한 사상성은 공리주의적, 정치주의 문학이 아니라 “시간적 항구성과 공간적 보편성”<sup>49)</sup>을 갖고 있을 때 달성된다고 주장한다.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인간이 영원히 가질 수 있는 인간의 가장 보편적이며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고도의 해석이나 비평-이것이 문학에 있어서의 참된 사상성 다시 말하면 ‘문학적 사상의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sup>50)</sup> 그러므로 구경적 생의 형식 추구가 본격문학의 과제라고 주장한다. 이 둘은 “시대와 사회를 초월하여 인간이 영원히 가지지 않을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이며 근본적(究竟的)인 문제-다시 말하면 자연과 인생의 일반적 운명-에 대한 독자적 해석이나 비평에서만 가능한 것”<sup>51)</sup>이라는 공통점에 서 있기 때문

48) 김동리, 『문학적 사상의 주체와 그 환경-본격문학의 내용적 기초를 위하여』, 『백민』 4권 4호, 1948. 7, p.4.

49) 위의 글, p.8.

50) 위의 글, p.9.

51) 위의 글, p.10.

이다. 생의 구경적 형식을 통해 문학의 사상성을 진취하는 본격문학과 제3휴머니즘 추구를 조선의 과제로 제시한 민족문학의 결합을 통해 김동리는 민족 문화적 원상과 민족적 사상성을 추구하여 민족국가에 필요한 공통적 감각과 상상력을 재현한다.

소설 『미수』는 민족의 사상성으로 ‘운명’에 대한 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것의 의미를 해석한다. 딸의 제사상 차림을 둘러싸고 죽은 딸의 어머니와 사위의 현재 처인 윤성네의 갈등으로 소설은 시작한다. 노파는 자신이 죽은 후에 제사를 지내줄 사람이 없다는 사실에 한스러워한다. “사람이 살아서야 여간 고생을 하더라도 죽은 뒤의 복을 타야지, 한 해 한 번씩 뗏뗏이 제사 지내줄 사람도 없다면 그 무궁한 세월을 또 어떻게 굶주리며 도라다니단 말인가.”<sup>52)</sup>라며 딸의 제삿날에 함께 오기 위해 자살을 시도한다. 노파는 남의 여생의 괴로움과 사후 세계의 외로움을 피하고자 자신의 운명을 딸의 제삿날로 맞추고자 했지만 달성하지 못한다. 사후의 운명을 위해 현세의 운명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고자 한 셈이다. 그러나 현세의 운명은 자살 미수로 인해 “금년 신수에 구설수가 들었던가보다고, 그러나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의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는”<sup>53)</sup> 윤성네의 푸념 속에서 더욱 비참해질 자신의 말년의 생애를 예감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처럼 이 소설은 노파를 통해 운명에 관한 주체적인 행위가 무기력하게 좌절됨을 드러낸다. 즉 이 소설은 자연의 숨겨진 힘을 바꾸고 재편성하려는 근대적인 과학적 입장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절대성에 패배하는 인간의 무력감을 드러내어 종교의 절대성에 복종하고 귀의하는 신비주의적 입장에 서 있다.

이 운명의 절대성은 소설 『역마』에서 정밀하게 완성된다. 운명에 대한

52) 김동리, 『미수』, 『백민』 3권 1호, 1946. 12, p.81.

53) 위의 글, p.89.

민족적인 믿음과 향토에 대한 정서가 정밀하게 맞물려 민족의 원상을 완성하고 있다.

장이 서지 않는 날일지라도 인근 고을 사람들에게 그곳이 그렇게 언제나 그리운 것은, 장터 위에서 화갯골로 뻗쳐 앉은 주막마다 유달리 맑고 시원한 막걸리와 펼 펼 살아 뛰는 물고기의 회를 먹을 수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주막 앞에 늘어선 능수버들 가지 사이사이로 사철 흘러나오는 그 한 맑고 멋들은 진향조 단가 육자배기들이 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sup>54)</sup>

장터, 주막, 막걸리, 육자배기의 감각적인 연쇄로 향토의 풍경과 서정의 이미지를 민족적인 기층문화의 실제적이면서 가상적인 현전으로 바꾸어 민족적인 공통 감각을 창출하는 데 성공한다. 『역마』에서는 운명의 우연성에 의해 인물들이 생겨나고 인물들은 운명적인 삶을 그대로 수용한다. 풍토와 운명의 결합은 민족과 개인의 운명적 결합을 암시한다. 여기에는 서구 시민 사회에서 등장하는 욕망 주체의 능동성은 존재할 여지조차 없다.

설흔 여섯 해 전에 곡 하룻밤 놀다 갔다는 젊은 남사당의 진향조 가락에 반하여 옥화를 배게 된 할머니나, 구름같이 더 돌아 다니는 중과 인연을 맺어서 성기를 가지게 된 옥화나 다 같이 화개장터 주막에 태어났던 그녀들로서는 별로 누구를 원망할 턱도 없는 어미 딸이었다.<sup>55)</sup>

주인공 성기가 당시주에 시천역(時天驛)이 들었다 하여 이 운명을 바꾸어보려고 할머니는 열 살 때부터 절에 보내어 중질을 시켰고, 어미 옥화는 곁에 두고 장터 책장사를 시켰다. 그러나 이복 이모임을 모르고 사랑하게 된 성기는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의 역마살이라는 운명을 수용하여 옛판을

54) 김동리, 『역마』, 『백민』 4권 1호, 1948. 1, p.60.

55) 위의 글, p.62.

메고 방랑을 떠난다.

이처럼 『역마』는 신을 잃어버리고 신을 찾는 근대인으로 끝없이 미지의 것을 강제 받고 끝없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서구의 근대적 개인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와 운명에 순응하여 일체화하여 확장하는 우주적 존재론을 민족의 문화적 본질로 제시한다. 체념을 통해 운명에 몸을 맡기는 무아(無我)를 통해 새로운 자아상을 찾음으로써 세계와의 유기성을 회복하려는 전략을 보여준다. 그러나 운명론이 실체화 되어 종교적 입장으로 회귀하는 것이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즉 서구적인 것에 대한 대립항으로써 민족적이고 동양적인 운명 혹은 천(天)의 사상을 펼친다. 그러나 김동리의 부정론은 부정의 대상이 개성의 자유로운 창의를 되어 반실체론, 반섭리론, 열린 사고로 발전하는 방향이 아니라 실체론, 섭리론, 닫힌 사고로 종교적 세계로 귀결된다.

김동리는 일상을 특수한 것에서 예외적인 것으로,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하여, 항구성과 보편성을 지향하는 구경적 생의 추구가 일상을 예술 창조의 원천이 되는 영원한 정서적 가치들로 변형시켜 시간성과 역사성을 탈각시켰다. 문화적 본질로 실체화된 민족 사상이나 전통은 실제적인 공간과 무관하게 시간을 내면화하고 탈물질화하고 탈역사화 할 수 있는 문화적 형식으로 재생산된다. 그러나 역사 그 자체를 초월한 신비하고 토착적인 미학적 유산을 영속화하려는 김동리의 문화적 본질주의는 현재적 일상을 과거와 현재를 초월한 영원한 핵심가치들을 찬양하고 문화적 가치에 특권을 부여하는 장소로 왜곡시킨다. 즉 김동리의 구경적 삶이 민족적인 것으로 전개될 때에 민족 전통론의 다양한 문화적 형태들은 단일하고 동질적인 역사적 연속체로 환원되고 만다. 민족문화 혹은 역사는 사회형태와 관습에 따라서 다르게 경험되는 역사적 시간에 대한 의식이자 특정한 문화형식이라는 점<sup>56)</sup>을 알지 못한 채 이를 단일한 차원과 대상으로 본질주의로 수렴시켜 버린다.

김동리가 ‘제3휴머니즘’으로 생의 구경적 형식을 추구하는 것은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나 결여태가 아니라 자기 충족적이고 충만한 주체로써 자신을 표상하고자 하는 욕망에 다름 아니다. 이것은 또한 서구적 근대와 식민주의를 넘어서 민족국가의 수립을 향한 열망을 분출한 것이다. 즉 김동리의 글쓰기는 민족적인 시원과 사상성을 민족적 본질로 재현(representation)함으로써 민족적 에너지를 수렴하여 민족국가 수립에 필요한 공동의 기억을 작동시키는 장치로 기능한다.<sup>57)</sup> 그러나 문제는 김동리의 민족적인 토착문화에 대한 호소야말로 바로 김동리가 지향했던 탈근대적인 것이 아니라 근대성의 기호이며, 근대주의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 근대주의의 이데올로기적인 프로그램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즉 제3휴머니즘을 앞세워 서구의 근대주의를 초월하고자 했지만 오히려 그 논리에 포섭되고 만 셈이다.

## 5. 결론

이상과 같이 해방기 민족주의 진영의 중심 잡지인 『백민』에 실린 김동리의 소설과 평론을 중심으로 김동리의 글쓰기 양상을 고찰해 보았다. 해방 후 김동리는 순수문학을 주장하며 문학가동맹 측과 맞서며, 순수와 민족,

56) Harry Harootunian, *History's Disquiet*, 윤영실·서정은 옮김, 『역사의 요동』, 휴머니스트, 2006, p.143.

57) 김동리는 소설 『검군』(『연합신문』1949.5.15-6.27)을 통해 신라의 화랑정신을 민족적인 원형으로 재현해낸다. 이러한 신라주의는 김동리가 정신적 스승으로 삼고 있는 김범부와 서로 통하고 있다. 김범부는 1954년 해군본부정훈감실에서 『화랑외사』를 펴냈는데, 화랑의 정신을 국가주의와 결합시키고 있으며, 국민도덕의 원칙 역시 화랑의 정신과 행동에서 구하고 있다. 사다함 화랑처럼 국가와 민족을 위한 열정에 바쳐지는 죽음에서 개인적 삶의 가치를 찾고, 그런 죽음의 정서를 자연스러움과 숭고함으로 치환하고 있다.

개인의 운명과 민족적인 것의 유기적 연결 속에 민족에 순수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민족의 개념을 문화 민족으로 파악하면서 국가 민족으로 파악하는 좌익의 입장을 소연방의 예를 들어서 민족 허무주의라고 비판한다. 이를 통해 해방기에 수행된 민족 이해에 대한 두 가지 접근 태도를 민족적인 것과 반민족적인 것이라는 대립틀로 단순화한다. 민족은 사심 없는 순수한 공동체라는 착시 효과 때문에 김동리는 계급적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계급문학과 달리 민족문학을 순수문학이라고 규정할 수 있게 된다. 이런 토대 위에서 해방기 당면과제인 민족문학과 민족국가 수립이라는 목표에 부응하여 민족의 사상적 형식을 탐구하고 민족 독립의 현실적인 전술을 실천함으로써 민족을 매개로 하여 문학의 제도화를 도모한다.

따라서 김동리는 ‘문학적 주체 의식’이 민족에 있느냐 혹은 계급에 있느냐는 구분법을 통해 민족문학의 진정성을 판단하고자 한다. 이러한 구획 속에서 진정한 민족문학을 수립하기 위해 그의 글쓰기는 두 개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하나는 민족혁명을 통한 민족국가 수립을 위한 방향모색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의 사상성의 내용과 방향을 모색하며 민족적인 것의 시원과 문화적 본질을 찾아나가는 것이다.

김동리의 민족국가 수립의 의지는 소련과 좌익에 대한 대타의식에서 구성된다. 따라서 해방기의 김동리의 글쓰기에서 좌익의 부정적인 형상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우익에 의한 민족국가 수립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좌익을 유기체적 인격인 민족을 배신하는 반윤리적 집단으로 부정적으로 표상하면서 민족혁명을 지향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김동리는 민족국가의 세계관과 이를 뒷받침한 민족문학의 내적인 사상성과 내용을 모색하여 영원한 생명력을 갖는 문학, 구경(究竟)의 문학을 제창한다. 김동리의 글쓰기는 일상을 특수한 것에서 예외적인 것으로, 현재에서 과거로 전환시켜버렸다. 그 결과 항구성과 보편성을 지향하는 구경적 생의 추구가 일상을 예술 창조의 원천이 되는 영원한 정서적 가치들로 변형시켜 시간성과

역사성을 탈각시켰다. 문화적 본질로 실체화된 민족 사상이나 전통은 실제적인 공간과 무관하게 시간을 내면화하고 탈물질화하고 탈역사화 할 수 있는 문화적 형식으로 창출되었다.

이처럼 해방기 김동리의 글쓰기 방식은 문화적 본질주의를 토대로 한 민족혁명과 민족국가 건설을 지향하고, 민족적인 것의 순수한 기원을 찾아 민족의 공통의 기억과 감각을 제공하고 있다. 즉 김동리는 민족의 공통의 정서나 향토 감각, 혹은 운명론에 대해 천착하게 되는데, 이러한 민족적인 사상성과 공통감을 발견하고 이를 민족 고유의 것으로, 기원으로 치환하고 있다.

그러나 좌익을 반인륜적 집단으로 표상하는 태도는 좌익의 사상이나 행동은 합리적 생성이 불가능한 닫힌 것으로 판단하고 배제하고 폐기해버리는 한계를 노출한다. 또한 민족적 시원과 사상성의 창조는 근대주의에 대한 저항 방식이지만 이것 역시 근대성의 기호로 근대주의의 이데올로기적인 프로그램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탈근대는 실패하고 만다.

【참고문헌】

- 강경화, 『해방기 김동리 문학에 나타난 정치성 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제18호, 2003. 6, pp.243-265.
- 권영민, 『해방직후의 민족문학운동 연구』, 서울대 출판부, 1986.
- 김건우, 『김동리의 해방기 평론과 교토학과 철학』,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 37호, 2008, pp.263-290.
- 김동석, 『해방기 소설의 비판적 연술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2005.
- 김동인 외, 『한국문단이면서』, 깊은샘, 1983.
- 김병길, 『해방기, 근대 초극, 정신주의』, 한국근대문학회, 『한국근대문학연구』 5권 1호, 2004, pp.328-362.
- 김철, 『김동리와 파시즘』, 한국문학연구학회, 『현대문학연구』 12집, 1999, pp.247-276.
- 김한식, 『『백민』과 민족문학』, 상허학회, 『상허학보』 20호, 2007, pp.231-270.
- 서재원, 『김동리 소설의 서서구조 연구 : 해방기를 중심으로』, 안암어문학회, 『語文論集』 42집, 2000. 8, pp.109-129.
- 신형기, 『해방기 소설 연구』, 태학사, 1992.
- 유임하, 『‘순수’의 이데올로기적 기반』, 우리말글학회, 『우리말글』 제38집, 2006. 12, pp.329-352.
- 이동하, 『한국문학의 전통지향적 보수주의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 논문, 1989.
- 이병순, 『『백민』 계재 소설 연구』, 한국현대소설학회, 『현대소설연구』 2권, 1995, pp.141-178.
- 진정석, 『김동리 문학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1993.
- 한수영, 『“순수문학론”에서의 “미적 자율성”과 “반근대”의 논리 - 김동리의 경우』, 국제어문학회, 『국제어문』 29권, 2004, pp.147-176.
- 고야스 노부쿠니, 이승연 옮김, 『동아 대동아 동아시아』, 역사비평사, 2005.
- 나카무라 미츠오·나시타니 게이 지 외, 이경훈 외 옮김, 『태평양 전쟁의 사상』, 이매진, 2006.
- Benedict Anderson, 윤형숙 옮김,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2
- Bill Ashcroft 외, 이석호 옮김, 『포스트 콜로니얼 문학이론』, 민음사, 1996.
- Harry Harootunian, 윤영실·서정은 옮김, 『역사의 요동』, 휴머니스트, 2006.
- Jurgen Habermas, 이진우 옮김, 『현대성의 철학적 담론』, 문예출판사, 1994.
- Thomas Ernest Hulme, 박상규 옮김, 『휴머니즘과 예술철학에 관한 성찰』, 현대미술사, 1993.

**Abstract**

## The Study of a writing aspect on cultural essentialism after the liberation

Chin, Young-Bok

This article was considered the writing aspect of Kim Dongni focused on the novel and criticism written by Kim Dongni being put in the magazine, [Baekmin], which was a key magazine for the nationalist side during the Liberation Era. After the liberation, Kim Dongni set up a national as an absolute value for emphasizing the organic link between pure and people, individuals and communities and the personal fate and the national fate while insisted a pure literature and opposed a literature alliance.

Upon this foundation, this article tried to plan a literature to systemize via a national, as exploring the ideological form of a people for responding the goal to establish national literature and country that was a main task during the Liberation Era, and as practicing a realistic strategy for national independence. Therefore, for writing-liberal era by Kim Dongni, there are two directions. One is to plan toward establishing a national country through national revolution, the other is to plan the content of a people's thought and direction, at the same moment to find the origin and cultural nature for national things.

While Kim Dongni's will for establishing an ethnic country was formed by being aware of alternation for the Soviet Union and the left, it gave rightness to establish a national country by the right indirectly via an adverse modeling. It was toward to a national country or national revolution marking negatively the left to the anti-ethical group in which betray a people, community humanity. Also Kim Dongni re-created the literature which explore one's heart desire to the literature which has the eternal life when finding the

world-view of a ethnic country, the content and inner thought of national literature, which support that, also made it change to the eternal emotional value, so that made a presence in time and historicity free.

Such this, how to write by Kim Dongni during the Liberation Era, directed to establish national revolution and an ethnic country based on the cultural essentialism, and provided the common memory of a people and sense looking for the pure origin for nationality. However, although the thought of a people makes mysterious and indigenous heritage be last long, he made current daily distort to the place where empower a special right to admire the eternal core value transcended by past and present, and the cultural value.

Key-words : 『Baekmin』, the Liberation Era, Kim Dongni, Cultural Essentialism, Nation State, Culturenation[Kulturnation], Origin, Common sense, capitalism, modernity

진영복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교수

주소 : (120-845)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186-1 미성아파트 1동 407호

전화번호 : 02-2123-6039

전자우편 : sunjyb@yonsei.ac.kr

이 논문은 2010년 4월 30일 투고되어  
2010년 6월 16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0년 6월 17일 게재 확정됨.